

# “작은 인연도 소중한 여기는 마음...”

부산 흥법사 주지 심산 스님



심산 스님은 ... 동국대 선학과와 불교문화대학원을 졸업했다. 1986년 대성사 주지를 역임하고 공군법사, 공창 종합사회복지관장, (사)동원 이사장 등을 지냈으며, 1994년~2002년 통도사 부산포교원 불지사 주지를 거쳐 조계종 흥법사 주지를 맡고 있다. 현재 (사)한나래문화재단 이사장, (재)불심흥법원 이사, 국제불광회 한국 부산협회 회장으로서 활발한 포교 활동을 펼치고 있다. 몽골 NOC 훈장, 조계종 포교원 제10회 포교대상 원력상, 2014년 조계종 포교원 제26회 포교대상 공로상 등을 수상했다. 또한, 몽골의료봉사 지원 및 몽골 헌옷 보내기 지원사업, 다문화 페스티벌, 청소년 몽골 봉사 활동, 인도영화제 개최, 인도 KITT 대학 상호교류협력 체결 등을 통해 해외 포교에도 앞장서고 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본적은 없습니다. 포교를 위해 좋은 조건이 갖춰야한다고 생각해본 적이 없어요. 신도가 한두 명 뿐이었던 불지사를 맡았을 때도, 비닐법당으로 흥법사 법회를 시작할 때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묵묵히 찾아 열심히 했을 뿐이죠. 절박한 사명감을 가지고 현재의 조건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렇게 10년만 노력한다면 포교의 성과는 드러나게 마련이죠.”

불자와 비불자를 아우르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포교의 새 방향을 제시해온 흥법사 주지 심산 스님은 포교의 핵심은 현재의 조건을 잘 살피고 그에 맞는 방법을 찾아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불자와 비불자를 아우르는 도심 포교로 개사 10여년 만에 대형 사찰의 면모를 갖추며 힐링의 명소로 자리잡은 부산 흥법사 주지 심산 스님의 포교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 비닐 법당 법회에서 대규모 불사까지

흥법사 입구에 조성된 아미타대불은 흥법사를 상징하는 웅장한 불상이다. 대광명전을 좌대로 삼아 모셔진 아미타대불은 높이가 21m인데, 건축물인 대웅보전까지 합치면 45m 크기의 좌불로 국내 최대 불상이라고 한다. 달라이라마존자가 보내준 부처님 진신사리까지 봉안되어 있어 흥법사를 찾는 이들에게 환희심을 일깨워주기에 충분하다.

흥법사에는 주말이면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부터 삼을 찾아온 어르신들까지 문전성시를 이룬다. 불자 비불자 상관없이 이곳을 들리는 이라면 웅장하고도 정감하게 불사를 이룬 사찰을 보고 환희심을 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통도사 부산 포교당 불지에서 도심 포교로 왕성한 활동을 하던 스님이 흥법사 불사를 시작하기는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불지에서 도심 포교와 복지 활동에 큰 두각을 보이던 스님에게 새로운 제안이 들어오게 된다. 흥법사 창건주 해 하도명화 보살이 평생 서원이었던 절을 짓고자 하는데 심산 스님을 주지로 모시고 싶다고 했다.

“보살님께서 절을 짓고자 원력을 세우시고 20여년 동안 인연을 찾아다니셨다고 했습니다. 재단법인 불심흥법원에서 이사로 활동하며 보살님을 뵈곤 했는데 자신의 신장 농원에 절을 짓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스님은 흥법사로 자리를 옮겼다. 당시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그곳은 2층으로 마련된 낡고 초라한 요사채와 농장을 가득 채운 나무만이 있을 뿐이었다. 더구나 부산 시골 변두리에 위치해 버스조차 다니지 않는 곳이었다. 스님은 이곳에서 새로운 행보의 첫발을 내디뎠다.

6개월간 은거 생활을 하며 앞으로의 방향을 고민하던 스님은 자신이 처한 조건에서 해야 할 일을 찾았다. 30평 남짓의 농장관리 사육을 개조해 첫 법회를 연 것이다. 열 명 가량으로 시작했던 법회에는 천천히 신도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어린이법회에서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 또 취미활동에서 신행까지 다양한 콘텐츠를 마련해 신도 한 명 한 명의 눈높이에 맞춘 포교에 힘을 기울인 결과였다.

그렇게 일 년 사이 수많은 불자들이 몰려들고 더 이상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하지만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 자유롭게 불사를 할 수 없었다. 농장관리사육을 조금씩 허물어 공간을 만들고 비닐을 엮어 벽을 만들어 임시방편으로 바람을 막으니 비닐하우스나 다름없는 법당이 됐다.

“물론 상황이 열악했죠. 하지만 어렵다 포기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포교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생각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002년 종단에서 처음으로 템플스테이 사찰을 지정할 때도 전국에 5개 사찰 중에 저희 사찰이 선정됐습니다. 단정도 기와도 없는 곳에서 템플스테이가 가능하냐며 우려를 표하는 사람이 있기도 했지요. 하지만 저희는 성공적으로 템플스테이를 해냈습니다”

흥법사 템플스테이는 영어 프로그램 및 외국인들과의 만남 등으로 교육에 관심이 많은 학부모들의 관

군요. 그러나 부처님 가피로 흥법사가 지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렇게 불사를 이룬 흥법사는 현재 등록 신도 숫자만 해도 7천 명이 넘는 정도이며, 부처님 오신 날에는 2만 명의 불자들이 다녀간다. 또한 초하루 법회와 어린이법회 등 각 법회에는 불자들이 몰려들면서 법당을 가득 채우는 활기 넘치는 사찰이 된 것이다.

### 출가의 원을 세우다

심산 스님은 고등학교 시절 불교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출가를 결심하게 됐다. “울산고에 입학했을 때 불교학생회 선배들이 학생의 실명자 교실을 찾아왔는데 자석에 이끌리듯 선배들을 따라 학생회를 찾았어요. 정기법회로 해남사를 처음 찾았을 때 문살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과 향나무, 단청 그 모든 것이 감동이었습니다. 그렇게 매주 토요일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정기법회를 다녔죠.”

그리고 그해 5월 통도사에 법문하러 온 종범 스님을 만나게 되면서 불교의 본질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그날 스님은 ‘일체유심조’를 주제로 자유자재한 마음에 대해 법문을 하셨어요. 자유에 대한 개념을 단박에 정리해주는 법문에 큰 충격을 받았죠. 어린 시절 겪었던 긴장감과 두려움이 떠올랐어요. 어둠 속에서 귀신을 만난 상상을 하며 느꼈던 두려움과 그 때문이 어디서 왔는지 생각하게 됐죠. 그 후로는 일체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오직 불교만 생각하게 되었죠. 그러나 학교 공부도 의미가 없어져 소홀하게 되었습니다.”

1학년 내내 불교 학생회 활동에 매진하던 스님은 2학년 때는 영남불교연합회 학생회장을 맡게 된다. 그때부터 스님은 포교에 남다른 역량을 보여주었다. 당시 200여명이었던 연합회 회원이 340여명까지 늘게 된 것이다. “당시 임원단들은 신행 프로그램으로 수련회, 철야정진과 법회, 야외 법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어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니 회원수가 1.5배 늘었어요. 해인사에 야외법회를 갈 때는 참가자 수가 200명 가까이 모일 정도 반응이 좋았어요. 당시는 회장직을 한 학기만 할 수 있었으니 이 모두가 6개월만에 이루어낸 성과였죠.”

또한 이 시기에 스님은 출가를 결심한다. “2학년 때 여름 학생연합수련회가 경주 중생사에서 열렸어요. 500명 정도가 모인 자리였죠. 마지막 날 수계식에서 당시 중생사 주지였던 불심 도근 스님이 출가 할 사람이 있냐며 갑작스럽게 질문을 하시더군요. 번쩍 손을 들었는데 참가자 중에 손을 든 사람은 저 혼자였어요. 그러자 도근 스님께서는 동국대에 입학하고 찾아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1학년 내내 손을 놓았던 공부를 다시 시작했죠. 그리고 동국대 선학과에 합격하고 스님을 찾아뵈고 출가하게 됐습니다.”

### 문화로 경계없는 불법 홍보 발원

이렇게 출가한 스님은 1994년 통도사 부산 포교당 불지사 주지를 맡게 된다. 당시 스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포교 실력(?)을 발휘했다.

“당시 불지사는 숟가락, 젓가락조차도 사러 다녀

### 고교시절 불교학생회 활동에 매진

종범 스님 일체유심조 강의 들으며 마음의 원리 관심갖고 출가 결심

### 통도사 포교원 불지사 주지 시절

다라니 기도로 대중들의 불심 일깨워

3년만에 1400여 회원 동참 눈길

공양미 모아 무료 급식으로 회향

### 부산 외곽지역 흥법사 불사 시작

문화와 신행 아우르는 적극적 포교로

유아부터 노인까지 신행활동 이끌어

심을 이끌어내는 등 신도들의 눈높이에 맞춘 콘텐츠로 주목을 받았다.

그렇게 5년의 시간이 흐르고 2007년 그린벨트 지정이 풀리자 곧장 불사를 진행했다. 2008년 6월에 기공식을 시작해 1년 만에 대웅보전을 완공했다. 일사천리로 불사가 진행됐다. 스님은 이 과정을 통해 불사는 부처님의 가피 없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절감했다고 했다.

“비가 내리면 안 되는 상황에서는 신기하게도 비가 안 왔어요. 흥법사 옆에 다리 건너에는 비가 와도 경내에는 비가 내리지 않는 겁니다. 또 어떤 날 하루는 건설 담당자가 콘크리트를 붓고 나서 그 위를 한 번 물로 씻어 주면 좋는데 하는 겁니다. 하지만 500명이나 되는 곳을 무슨 수로 씻겠습니까? 그 다음날 새벽에 안 내리던 비가 내렸는데 역시 같이 퍼부었습니다. 새벽 예불을 위해 준비하던 그때부터 시작해 새벽 6시까지 내리니 공사 현장이 깨끗이 씻겨지

## 마하연여행사

예약 문의: 02) 365-7747  
www.mahayeon.com 대표 청정행 두손모음

**여행 문의 상품**

**중국**  
[지장도량] 구화산/황산/항주 5일  
[관음도량] 항주/보타/낙산 5일  
[상해/항주/구화산/보타산] 6일  
[보현도량] 성도/아미산/낙산대불 5일  
[문수도량] 북경/오대산 5일  
[민족의영산] 백두산 5일  
[서안/용문석굴/스미사] 5일

**인도 9일**  
델리-라지푸르-나란다-보드가야-바라나시-아그라

**인도 11일**  
델리-바라나시-보드가야-라지푸르-바이살리-나란다-쿠시나기르-볼리니-키질라비스투-쿠탄-산카시아-아그라

**미얀마**  
양곤-바간-헤오 5일  
양곤-바간-만달레이-헤오 5일  
양곤-바간-만달레이-헤오-짜이티오 7일

**티벳 6일**  
상도-라사-암드록초-간제-시가체

**티벳핵심하늘열차 8일**  
중경-라사-장제-시가체-라사-난주역-하늘열차

# 인도양의 찬란한 빛

## 구름도 머물다 가는 곳

# 스리랑카 라오스

1. 직영으로 중간 마진을 뺀 가격 책정

4. 추가경비 일체 없는 가격책정

2. 오랜 경험으로 현지 불교행사 진행

5. 호텔/행사일정/식사 타사 비교 필수

3. 맞춤 순례 운영 \* 불교행사 \*

6. 8인이상 출발 가능

● **스리랑카 완전 일주 8일**      출발일: 매주 일,월,수,금 출발  
콜롬보-아누라다푸라-담불라-시거리아-폴로나루와-캔디-누와라엘리아-벤토타

● **스리랑카 6일 요금문의**      출발일: 매주 수요일 출발

● **라오스 6일**      출발일: 매주  
비엔티엔-방비엥-루앙프라방

● **라오스,베트남(하롱베이) 7일**      출발일: 매주

《 전세계 여행상품 20년의 노하우 마하연 여행사 만의 알찬 일정 》

# 포교의 첫 걸음이죠”



아미타대불 앞에서 신도들과 함께. 45m의 규모의 홍법사 아미타대불은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대웅보전 건립 기공식에서 심산 스님이 마이크를 잡고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동자승 삭발식을 진행하는 심산 스님의 모습.



심산 스님은 동련 이사장 등을 역임하며 어린이 포교에도 최선을 다해왔다.

야 할 만큼 살림이 가난했고, 신도는 1~2명 정도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부임한지 얼마 되지 않아 한 신도가 찾아와 부적을 써달라고 하더군요. 난감했죠. 이 사람에게 어떻게 불교를 가르쳐주어야 하나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스님은 불교를 기복으로 믿는 신도들을 부처님께 안내할 길을 모색했다. 불안에 떨며 부적을 찾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심정을 헤아리며 은사 스님이 일러준 다라니기도를 생각했다.

“신도들과 함께 다라니기도를 시작했어요. 매일 1일~3일은 여김없이 다라니기도를 이어 갔는데 부산에서는 처음으로 시작된 정기 다라니기도였어요. 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 마음을 모아기도를 했고 기도비는 공양미 이외에 받지 않았어요.”

이렇게 기도에 동참하는 신도들이 점차 늘어나면서 3년여 만에 신도가 1400여명에 이르게 되었다. 이쯤 되자 매일 다라니기도가 있는 날 불지사 앞에는 새벽기도를 마친 불자들이 위해 택시가 줄을 서서 기다리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기도하는 화원이 늘어나자 공양미만 매달 50가마니가 넘어서다. “당시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고 있어 신도들이 보시 올린 쌀은 복지관에 보내고 복한에 쌀을 보내기 위해 100가마니 정도 모았죠. 그때 IMF가 터졌어요. 거리로 내몰린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위해 공양미를 회향해야겠다고 결심했죠.”

스님은 무료급식을 위한 밥차를 마련, 매주 어려운 이웃을 위한 급식을 진행했다. 이는 스님이 주지를 놓고 떠

난 이후에도 계속 이어져, 불지사는 현재 부산 초읍 부산 자유회관에서 500여명에 이르는 소외 이웃들을 위해 급식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이 다라니기도는 새로운 불사를 위해 홍법사로 자리를 옮긴 뒤에도 이어졌다. 현재 홍법사는 정기적으로 매월 1일~3일 다라니기도를 이어가고 있다.

열악한 환경을 이겨내고 포교의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었던 특별한 노하우가 무엇이나는 질문에 스님은 “특별한 것은 없다. 단지 절박한 마음으로 노력을 기울였을 뿐이다. 그리고 작은 것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을 뿐”이라고 답한다.

또한 스님은 작은 인연도 허투루 보는 법이 없다. “홍법사 경내에는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산책을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다가가서 아기 손도 잡아 보고 이름도 묻고 하면서 언제 동자승 할거냐고 물어 봐요. 그런데 그런 말을 들은 부모들이 나중에 자녀를 동자승을 시키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 말 한마디 행동 하나 하나가 다음의 인연으로 다가올 수 있음을 알고 신도 한 분 한 분의 만남을 소중히 여깁니다.”

또한 스님의 철저한 문제 해결 방식 또한 포교활동의 큰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다. 회의를 통한 문제점 확인과 대책 마련 그리고 철두철미한 실행을 통해 스님은 사안을 해결해낸다.

“영남불교학술회 회장을 맡았던 교고시절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새기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반성과 성찰입니다. 어떤 행사가 끝나고 나면 회의를 통해 문제

점을 철저히 분석해 대책을 마련하고 발전 방향을 잡아 나갑니다. 이렇게 도출된 결과는 다음 행사를 진행할 때는 반드시 적용해 나가죠.”

홍법사는 현재, 영아부터 어린이 청소년 노인 외국인 불자와 비불자 등 모든 계층과 세대를 아우르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각광받고 있다. 불자뿐 아니라 비불자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까지 마련하니 스님은 불교가 아닌 것으로 불교를 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불교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면 포교에 한계가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힐링, 복지, 문화 등에 관심을 가지고 갈 곳을 찾아 다닙니다. 불교 안에 그 모든 것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제가 생각하는 사찰이란 취미에서 시행까지, 어린이에서 노인까지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종합문화 복지타운입니다. 비불자들은 처음부터 불교색을 강하게 드러내면 대부분은 반감을 가지죠. 가랑비에 옷 젖듯이 서서히 불교로 물들게 할 수 있는 그런 포교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포교의 방향에 대해 스님은 두 가지를 언급했다. “우선 템플스테이, 동자승, 영유아 수기 등 불교를 통한 전통 포교를 우선으로 하는 포교를 꾸준히 이어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를 뛰어넘는 사회 환원 활동을 통해 세상의 화합을 이끌어가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세상만물을 모두를 포용하는 부처님의 마음을 담은 홍법사, 그 중심에는 심산 스님이 있었다. 모두가 화합하는 불국정토의 아름다움이 홍법사를 통해 이뤄지길 바란다.

하성미 기자

## 전법일기

### 아이스크림과 교화

“아이스크림은 하루에 세 개씩만 먹는 거다! 알았지?” “네!”

아이들은 무엇인가 가르치면 대답을 굴뚝같이 한다. 하지만 아이스크림을 세 개만 먹기로 했다고 정말 세 개만 먹을 까? 아니다! 꼭 더 먹는 아이들이 있다. 더 먹는 것은 별로 문제가 안된다. 다만 그 방법에 문제가 있다. 당당하게 하나 더 먹고 싶다고 말하고 먹으면 괜찮는데 훔쳐 먹는 사람처럼 저 구석에서 몰래 먹는다. 그러다 스님이 지나가는 소리라도 들리면 깜짝 놀라서 흘리고 체하고... 꼴이 말이 아니다.

아이들은 천진하다. 그래서 그냥 교육 없이 가만히 두면 아이들이 저절로 착하게 살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한다.

니면 버릇을 고쳐줘야 할까? 아이들을 가르치는 현장에서는 항상 두 가지 딜레마가 공존한다. 그대로 두면 악습은 더욱 강해질 것이다. 어렵고 어려운 절집에서조차 이렇게 거지말, 도둑질을 한다면 세상 어디에서도 악습 행함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버릇을 고쳐줬다고 잘못을 알려주고 혼내기 시작하면 아이는 그 쓰디쓴 말이 마음에 거슬리고 두려워져 우리의 눈 앞에서 도망가 버릴 것이다. 선택은 항상 우리를 갈등하게 한다.

스승과 제자 간에 관계를 가시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면 다양하고 복잡한 관계의 색깔이 표현되었지만 그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두 가지 감정이어야 한다. 첫째는 스승에 대한 경외심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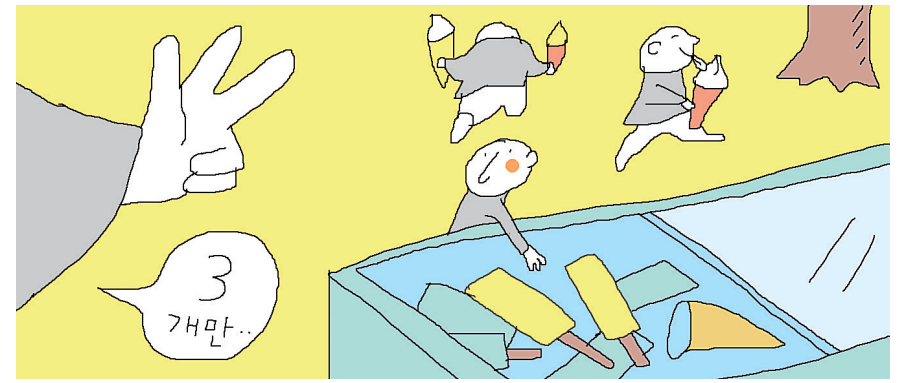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천진하다는 것은 물들이 쉽다는 것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를 둘러보라. 착하다 착한 세상인가? 아니면 번뇌로 물든 세상인가? 아이들을 그대로 두면 너무나도 쉽게 온몸과 마음에 악습을 덕지덕지 붙여버린다.

부모는 아이에게 생명을 불어 넣어주고, 골수를 빼서 그들을 보호하고 양육한다. 하지만 그들의 정신을 크게 만들고 그들을 행복으로 이끄는 것은 부모로서 역부족인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아웃소싱이 시작되는데 스승의 필요성은 바로 이때 시작된다.

제자의 악습과 선습의 밑당을 주도해주는 것이 바로 스승이기 때문이다.

교화라는 말은 교도 전화의 줄임말이다. 가르쳐서 이끌어주면 뒤집어진 견해와 습관이 180도 돌아 변화된다는 뜻이다. 스승은 제자를 교화해야 할 의무가 있으니 전법교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제자의 악습을 가르쳐 선습으로 이끌어주고 변화시키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이다.

아이들은 분명히 약속했다. 아이스크림을 세 개만 먹겠다고! 하지만 세 개를 넘게 먹었다. 그것도 훔쳐먹는 사람처럼 비굴하게. 이것을 그대로 두어야 할까? 아

들째는 스승에 대한 사랑이다. 이 두 가지 감정이 서로 끊임없는 밑당을 해내고 균형을 이룰 때 교육 효과는 급상승된다. 스승을 존경하고 그만큼 두려워하는 감정으로 치우치면 즉각적인 교육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두려움에 짓눌려 억지로라도 자신을 바꾸기 때문이다. 하지만 너무 딱딱하면 깨지기 쉽게 도망가 버리는 경우가 많다.

반대로 스승과 제자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무 치우치면 도망가지 않고 스승 옆에서 항상 함께 하고 싶어 하기에 관계가 오랫동안 지속되지만 두려움이 적기에 스승이 더 이상 스승 아닌 친구가 되어 버린다. 그럼 아무리 오랜 기간이 지나도 그의 악습을 선습으로 이끌어줄 수 없게 된다.

아이스크림 먹는 약속을 안 지킨 아이는 어떻게 되었을까? 여전히 그에 대한 답은 밑당 중이다.

나는 오늘도 그 아이가 낱장도 문 여는 소리에 집중하며 가장 거룩한 밑당을 하고 있다.



원민 스님(행복문화연구소 소장)

## 사찰불사! 정우불교예술원이 함께합니다

20년의 경력

**연등 자동 승강장치**

원주 보문사 대법당

**영가 위패단**

(실용신안 제20-0439285 / 디자인등록 제30-0477206)

제주 월성사 위패단

**인 등**

(실용신안 제20-0439286 / 디자인등록 제30-0477201)

인정성, 편리성, 디자인, 경제성 등 모든 면에서 만족하실 수 있습니다

제주 월성사 인등

**연 등**

노랑      진분홍      영기등

금등      바림등      만월등

\* 전문 기술진이 완벽하게 사공해 드립니다. \*

**정우불교예술원**    www.jeongwoo.info

전화 : 010-3724-0455, 031)969-631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은평마을로 100번

다나무 숲 부처님  
(동불, 특수불, 각종 불상)